

미국 의료 현실에 대한 고찰

- 한국 의료 현실과의 비교 및 방향성 고찰 -

임종우

1. 목적(Background & Aims)

한국과는 다른 미국의 의료 현실과 의료 체계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미국 의료 현실의 장단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. 나아가, 지금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한국의 의료 체계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및 대조한다. 궁극적으로는, 한국의 의료 체계의 개선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생각해본다.

2. 대상 및 방법(Methods)

Tampa general hospital 에 internal medicine 팀에 소속되어 1 달간 실습을 진행한다. 그동안 미국에서의 환자 접근 방식, 환자의 진단 과정, 팀 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본다. 또한, 치료 과정 내에서 어떤 식으로 환자를 follow up 하며 환자에게 best care 를 제공하는지 관찰해본다.

3. 결과 및 결론(Results and Conclusions)

미국은 우선 internal medicine 이라는 진료과에서 환자에게 primary care 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이는 한국의 내과 교실의 운영 방식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. 한국은 병동 중심으로 환자의 main issue 에 해당하는 과에서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, internal medicine 의 각 팀은 어떤 종류의 질환을 가리지 않고 진료를 보게 된다. 환자가 심근 경색으로 입원하든, 마약 중독으로 입원하든지 가리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internal medicine 의 팀 중 하나에 배정되어 그 팀이 환자를 주로 진료하게 된다. 진료 과정 중에 다른 세부 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, 그 과에 의뢰를 하여 그 팀과 협진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이다. 만약 위내시경이 필요하다면 소화기내과에 의뢰하고, 환자에게 당뇨가 있다면 dietician 에게 의뢰하여 환자의 식단에 대해 의뢰한다. 이렇게 각 세부 과에서는 환자의 다른 문제에 대해 신경쓰기 보다는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술기를 100% 활용하여 환자를 치료한다.

또한 미국은 팀 내의 모든 인원들이 수평인 관계로 의사 결정 과정을 진행한다. 의대생부터 인턴, 레지던트, 교수님 심지어 간호사까지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궁금증을 내던진다. 교수님은 환자를 본 시간이 긴 팀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해주고, 팀원들은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의 말을 존중해준다. 서로 의문점이 들면 질문하고, 그것에 대해 다시 토론한 후에 다음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된다. 수직적인 관계가 보편적인 한국과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수직적인 관계 내에서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평적인 관계 내에서보다 적을 것이다. 하지만, 수직적인 관계 내에서 의사 결정은 나머지 팀원들의 의견이 표출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. 그 둘 사이에 적절한 조화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도 이러한 수평적인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.

마지막으로는 미국의 환자 진료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. 미국의 병동에서는 6 인실을 찾기 어렵다. 모든 환자가 1 인실 내지는 2 인실에서 생활하게 되고, 2 인실도 환자가 없을 때에는 1 인실로 개조가 가능하다. 또한, 한 환자 당 면담에 걸리는 시간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길다. 회진 시에 기본 30 분에서 길면 1 시간 까지 환자와 면담하고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해주게 된다. 이렇게 긴 면담 시간으로 인해 의사는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알 수 있게 되고, 환자는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마음껏 물어보고 자세하게 답변 받을 수 있게 된다. 하지만 동시에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. 또한, 환자 한 명에게 소요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, 각 팀에서 전담할 수 있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. 이러한 대부분의 의료 현실의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의료 보험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, 각 보험 체계의 장단점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. 한국은 전국민에게 의료 보험이 제공되고, 각 의료 행위의 값이 저렴하게 책정이 돼있는 반면, 미국은 각 개인이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, 각 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의료 행위도 다를 뿐더러 그 보장하는 한도도 다양하다.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은 훨씬 싼 가격에 의료 행위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, 미국의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. 하지만 그렇게 싼 가격에 몰리게 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힘들고,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환자에게 최대한의 best care 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 보험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, 사회적 요소에 의해

영향을 많이 받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정답을 내리긴 어렵지만, 의료의 측면에서만 생각하여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양 극단의 두 제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.